



전북도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도민 대상 '전북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및 표어 공모 우수 아이디어 15건과 우수표어 28건을 최종 선정하고, 19일 도청에서 우수작에 대해 시상했다.

전북형 인구정책 수립 '총력'

도, 인구정책 우수 아이디어·표어 28건 최종 선정

전북도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도민 대상 '전북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및 표어(슬로건) 공모 우수 아이디어 15건과 우수표어(슬로건) 28건을 최종 선정하고, 19일 도청에서 우수작에 대해 시상했다.

'전북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및 표어 공모는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구정책 아이디어 59건과 인구 표어(슬로건) 212건이 접수되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간심사와 최종심사 총 2차례의 심사를 거쳐 정책아이디어 15건과 표어 28건을 최종 선정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종심사에서는 관련 부서장 및 분야별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창의성,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5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선정했다.

정책아이디어 분야에는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상 4명, 제안상 8명 총 15명이 선정되었으며, 표어 슬로건 분야에는 최우수 2명, 우수 4명, 장려

상 8명, 제안상 14명으로 총 28명이 선정됐다.

정책아이디어 최우수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표어(슬로건) 최우수자 2명에게는 상금 50만원 등 시상금이 수여됐다.

정책아이디어 최우수로 선정된 제안인 전북사랑희망적금은 도내 은행과 협약을 통해 전북으로 전입시킨 고액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상품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특히 최우수 건에 대해 전북도는 지난 18일 도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인구늘리기 릴레이 민·관 실천협약을 체결해, 전입 및 저출산 관련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우수는 청년농업인과 은퇴자의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내용인 '농업트네시스 전북이 열겠습니다'와 사회초년생과 노인인퇴자를 분야별 멘토링으로 사회초년생의 취·창업 지원과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은퇴자 진화형 인구유입 확대 방안' 등 2건이 선정됐다.

또한, 최우수 표어(슬로건)는 '아이 가족 희망전북, 일자리가족 행복전북'과 '오세요 전북으로, 함께해요 전북에서'로 2건이 선정되었고, 우수 부문은 '전북이 낳은 아이, 천년 전북을 만듭니다', '아이들은 생명이 시, 세계는 전라북도', '전북에서 정착하면, 우리모두 탄탄대로', '아이 가족 희망도시, 행복가족 미래전북' 등 도민이 희망하는 전북을 나타내는 톡톡 튀는 표어(슬로건)가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전북형 인구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향후 정책화가 가능한 사업은 예산확보로 이어져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 표어(슬로건)은 전북형 인구정책 홍보문안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중훈 전북도 대도약기획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 도민과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인구 인식개선과 내실 있는 전북형 인구정책 수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 소방본부,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공표

전북도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자율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운영과 관련, 올해 인증대상 11개소를 인정공표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란,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고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며, 같은 기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다중이용업소를 소방본부장(서장)이 인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도 소방본부는 상반기 중 각 지역의 우수업소를 발굴하여, 지난 8월~9월 접수된 후보 대상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거쳐 선정된 11개 영업장을 9월 중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예정'을 공고했다.

최종 공표된 도내 '안전관리 우수

업소' 11개소에 대한 표지 전달식이 관할 소방서장(과장) 주관으로 9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에 참석한 각 소방서장(과장)은 대상처 관계인에게 안전관리 우수사례에 대한 감사와 격려 인사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지정된 다중이용업소는 향후 2년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고, 같은 기간동안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김진성 기자

"훈민정음 반포 573돌, 함께 축하해요"

전북도, 도청서 한글날 기념식 개최
난타공연·판소리 한마당·백일장 대회 등 다채

전북도는 2019년 훈민정음 반포 제 573돌을 맞아 한글날 당일인 10월 9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기념식 및 각종 한글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한글날의 표어는 '2019 한글날로 하나되다'로 한글날을 맞이하여 전 세대의 계층이 참여하여 한글로 하나되는 한글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남녀노소 다양한 참석을 위해 각종 대회 등 또한 준비돼 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라북도 방언사전의 편찬 의의와 활용사례에 대해 토의,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따로 진행하며, 단순 행사성 위주에서 국경일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 위주로 진행한다.

또한 전북도 주최 행사인 만큼 행사 장소를 전북도청으로 선정했다.

한글날 전날인 10월 8일 오후 1시 전주교육대학교 마음연구회에서 한글날 기념 학술대회 '말모이'를 진행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전북대학교 이태영교수의 특강과 전주대학교 서정섭교수, 제주대학교 강영봉교수의 학술발표를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영화 '말모이'를 관람하며 우리말의 중요성을 되새긴다.

한글날 당일인 10월 9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기념식을 진행한다. 기념식은 식전공연(난타)으로 시작하여 개회, 주요내빈들의 축사 및 기념사와 전라북도 국어발전에 이바지한 한글유공자 표창과 각종 대회 우수 성적자들에 대한 시

상식을 진행한다.

당일 부대행사로는 초등학생들이 KBS골든벨 진행방식으로 하는 우리말 겨루기인 '초등학생 도전! 우리말', 국내 유명작가를 초청하여 관객과 소통하는 자리 '작가와와 만남', 전북지역 방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판소리 한마당',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대회 '전국학생백일장 대회', 각종 한글관련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 '한글문화체험 한마당', 사투리 손글씨, 시화작품, 한글소품 등을 전시하는 '전시행사' 등을 진행한다.

대회 접수는 오는 27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korean5@daum.net)으로 접수하거나 우편·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대회의 자세한 내용은 한글날 포스터를 참고하거나 063-220-3222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알뜰한 '전북도 농촌공감여행' 지금이 찬스!

숙박·음식·체험 최대 50% 할인

전북도는 전북농어촌지원센터와 함께 가을 여행주간을 맞이해 농촌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농촌공감여행'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도는 도정의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의 '사람찾는 농촌'을 실현하고, 본격적인 가을여행주간에 돌입함에 따라 '농촌공감여행' 할인 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촌공감여행'은 도시민들이 농촌 여행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에 공감하고,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 농촌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으로, 전북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우수마을로 인증한 52개소 마을에 방문했을 경우, 숙박·식사·체험 비용을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전북도는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농촌가을여행에 적합한 여행지와 농촌체험마을을 소개했다.

도에서 추천한 여행지로는 정음 태산선비마을, 남원 노봉촌불문화마을, 김제 벽골제마을과 고창 책마을해리마을이며, 올 가을에 추천 여행지를 방문하면 가을 감성과 풍성한 먹거리를 반값에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의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농촌공감여행 참여 후 인증사

이나 후기를 개인 SNS와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vill.kr)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가을의 넉넉함을 더한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물국장은 "전북형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식·현대회와 지역별 대표체험 발굴에 주력했으며, 그 결과 전라북도는 '농촌관광'으로 전국에서 최고임을 자부한다"며, "가을 여행주간을 맞이해 도시민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한 전북도 농촌마을에서 가을 감성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자원활동가 발대식 갖고 공식 활동 시작

2019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김한)의 자원활동가인 '소리천사'가 오는 2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의 시작을 일린다. 약 280여명의 소리천사들과 전 스태프가 참여해 축제의 성공을 기원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주세계소리축제 김한 조직위원장과 박재천 집행위원장, 전북도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참석한다. 조직위원장 환영사와 집행위원장 등의 격려사에 이어 소리천사 선서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단체 사진 촬영 및 올해 소리

축제에서 선보일 전통음악창작레지던시 '2019아시아소리프로젝트' 공연 관람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기획전시중 '존레논전'을 단체 관람할 예정이다.

소리천사는 그간 오리엔테이션과 팀별 세부교육 등에 참여하며 자원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정보를 습득하는 등 교육 과정을 성실히 수행했다. 이날 발대식을 기점으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이들은 축제 전날인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7박 8일 축제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소리천사들 덕분에 매 해 축제가 순항할 수 있었다"며 "2019전주세계소리축제가 소리천사들의 기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이 되길 바라며 성실하게 자원 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전주세계소리축제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130여회의 유·무료 공연을 선보인다.

축제 프로그램과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www.sori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